

[LT01: 초청강연] 대형광학망원경개발사업의 타당성조사 결과와 시사점

박지영, 박수동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투자적정성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6년부터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과학기술부가 2007년 신규 연구개발사업으로 제안한 대형광학망원경개발사업은 총사업비가 800억원으로서 2006년 상반기 사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동 사업의 타당성을 정책적, 기술적, 경제적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다기준분석(multiple criteria analysis)의 하나인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를 이용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망원경시설은 직접적인 경제적 가치창출이 불가능하므로, 조건부가치추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을 이용하여 소비자의 지불의사액(willingness to pay; WTP)을 추정하여 경제성 분석을 실시한다. 결론에서는 타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동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방안 등을 제시한다.

[LT02] 대형 광학망원경 개발사업 현황

김영수¹, 박병곤¹, 성현일¹, 안상현¹, 이동욱¹, 천무영¹, 한정열^{1,2}, 김상철¹, 김호일¹
¹한국천문연구원, ²과학기술연합대학원

한국천문연구원에서는 대형 광학망원경 개발사업을 기획하고 있다. 한국과 멕시코, 미국 등이 참여하는 국제 공동사업으로서, 주경 직경이 6.5 m인 망원경 2기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광시야와 협시야 망원경 각각 1기씩 제작하여 멕시코의 San Pedro Martir에 설치할 계획이다. 2006년도에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주관한 대형 광학망원경 개발사업의 사전타당성 조사가 있었다. 7월에는 멕시코의 INAOE에서 3주간 워크샵이 개최되어 이 망원경들을 이용한 science 목적을 비롯하여 관측기기와 망원경 개발에 대한 내용들을 집중토의하였다. 본 발표에서는 2006년도 초반과 중반에 걸친 사업의 추진 경과와 2007년도 사업의 계획에 대하여 보고한다.